

쌍형어에 대하여

이 은 경
(홍익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기존의 쌍형어 논의들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쌍형어는 공통의 어원에서 갈라져 나온 단어들의 쌍을 가리키지만 공식적으로 의미가 같고 형식의 유사성을 보이는 단어들의 쌍이나 문법 형태소들의 쌍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고는 전형적인 쌍형어는 공통의 어원을 가지는 단어들의 쌍이라고 보았다. 쌍형어는 의미와 형식의 유사성이나 차이에 따라 하위 유형화가 가능하다. 전형적인 쌍형어에서 가장 멀어진 것은 공통의 어원을 가지지는 않지만 의미가 같고 형식이 유사한 단어들의 쌍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쌍형어가 단어들의 쌍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공통의 어원을 가지는 단어들의 쌍이 전형적인 쌍형어이나 조사나 어미의 경우에도 쌍형어를 인정한다면 조사 쌍형어나 어미 쌍형어의 존재가 가능할 것이다. 접미사의 경우에는 접미사 쌍형어의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쌍형어를 형성하므로 굳이 접미사 쌍형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어미의 경우도 해당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의 쌍형어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한국어의 어미가 통사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많은 활용형의 쌍형어를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어미를 쌍형어라고 하는 쪽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간 쌍형어나 어미 쌍형어 일부가 기저형 층위에서 일종의 이형태 관계를 이루는지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하나의 어휘 항목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쌍형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일종의 복수 기저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쌍형어, 동족어, 동의어, 기저형, 표면형, 어원

I. 머리말

본고는 쌍형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쌍형어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쌍형어는 어휘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중세국어의 어휘를 다룬 논저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방언학 논저에서도 자주 사용되어 왔다.²⁾ 그럼에도 쌍형어 자체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으며 이 용어가 가리키는 외연과 내포가 그리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본고는 쌍형어라는 용어를 통해 한국어를 기술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국어학의 여러 논저에서 사용된 쌍형어의 용법을 살펴보고 기존의 논의에서 쌍형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쌍형어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영어학이나 서구 언어학에서 쌍형어(doublet)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떤 용법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지, 쌍형어를 어떤 유형으로 나누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쌍형어’는 영어의 ‘doublet’의 번역어이므로 한국어학에서 사용하는 ‘쌍형어’라는 용어가 서구 언어학의 정의나 용법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용법에서는 차이가 없지 않다. 서구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doublet’과 한국어학에서 사용하는 ‘쌍형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쌍형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유형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영어의 ‘doublet’에 대한 번역어는 쌍형어(이승녕 1975, 김성규 1998, 김영일 2001, 배영환 2002, 김양진·정연주 2008, 김소영 2017), 쌍생어(안병희 1959/1978), 쌍립어(김관식 1987), 이중어(조성식 편 1990, 김동섭 1994, 백미현 2017) 등으로 나타나는데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되어 ‘쌍형 어간’(곽충구 1980, 김무림 1995, 한재영 1997) 등과 같은 용어도 볼 수 있다.

2) ‘쌍형어’라는 용어도 나타나지만 ‘쌍형’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기존 논의에서는 단어의 쌍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용언 어간을 대상으로 기술을 할 때 ‘쌍형 어간’과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II. 기존 연구의 쌍형어 개념

한국어학계에서 쌍형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승녕(1957)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쌍형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바를’과 유사한 단어들을 ‘쌍형’이라는 용어로 가리키고 있다. 이후의 많은 논의에서도 ‘쌍형어’는 별다른 설명이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왔다.

안병희(1959/1978:39-40)에서는 15세기의 활용에 이른바 쌍생어(doublet, Doppelformen)라고 할 일군의 어간형태소가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나타나는 환경은 음운론적으로나 형태론적 및 통사론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지만, 의미의 동일성은 결코 두 개의 형태소로 다룰 수 없으므로 이들 쌍생어간을 어원론적인 쌍생어(doublet etymologique)라고 부른다고 했다. 안병희(1959/1978)에서도 ‘쌍생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기술의 일부를 통해 ‘쌍생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나타나는 환경이 음운론적으로나 형태론적 및 통사론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지만 의미의 동일성이 있어서 두 개의 형태소로 다룰 수 없어서 ‘쌍생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쌍생어’는 하나의 어휘소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의 어휘소에 속하지만 이들이 이른바 이형태 관계는 아니라고 보았다. 환경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상보적 분포를 한다고 기술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은용(1967)에서는 이두 표기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신라어 시기에는 하나의 단어였던 ‘하나’에 해당되는 신라어 단어가 상이한 형태변화를 통해 ‘하나, 갈, 홀’과 같이 상이한 단어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들을 ‘doublet’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용법에 따르면 쌍형어는 공통된 어원에서 갈라져 나와 의미가 달라진 별개의 형태소 또는 별개의 어휘소에 속하는 단어들을 가리킨다.

박충구(1980:108)에서도 ‘음운, 형태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의미가 동일한 어원론적 쌍형어간’이라는 기술을 볼 수 있다. 이는 쌍형어를 동일한 어휘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송철의(1993:33)에서는 ‘무엇’과 ‘무어’가 개별적으로 어휘부에 등재되는 두 개의 어간이며 이들 각각은 각자 독자적인 곡용의 패러다임을 가지는 쌍형 어간이라고 부

른다.³⁾

한재영(1997:792-793)에서는 쌍형어간을 의미나 기능상의 차이가 없이 쓰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유교체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기존 형태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출현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어원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체형으로 본 것으로 이해되므로 쌍형어간은 하나의 어휘소에 속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병희(1957/1978)의 입장과 동일하다.

김성규(1998)에서는 ‘의미가 동일하고 어형이 비슷한 어휘류’라고 하였다. 어휘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서로 다른 어휘소에 속하는 단어들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⁴⁾ 구본관(1998:317)에서도 15세기 부사파생접미사 ‘-히’의 경우에 ‘-히’가 결합하는 어기가 ‘-이’와도 결합하므로 ‘-히’와 ‘-이’의 관계를 형태론적인 이형태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일종의 쌍형어 관계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⁵⁾

김영일(2001:92)은 의미가 같거나 거의 같음을 전제로 하는 두 단어(또는 둘 이상의 단어)가 그 어형의 대부분이 같고 오직 일부만이 다를 때 쌍형어라 부르기로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어원은 쌍형어 개념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못한다. 김영일(2001)에서는 동일한 어근에 상이한 접미사가 첨가되었으나 의미가 동일한 파생어들, 음운 변동에 의해 음상이 달라진 단어들, 표기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 모두 쌍형어에 포함시켰다.

배영환(2002)은 본격적으로 ‘쌍형어’의 조건과 판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 3) 그런데 준말에 대한 정의들이 대부분 음절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만 준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엇’과 ‘무어’는 본말과 준말의 관계로 보지 않으나 이재현(2005)에서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는 ‘무어’도 준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4) 배영환(2002:60)에서는 이승재(1983), 김성규(1996, 1998)이 안병희(1957)의 입장과 같다고 보았으나 이승재(1983), 김성규(1996, 1998)은 쌍형어에 속하는 단어들 이 각각 별개의 어휘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듯하다. 특히 김성규(1998:176 주1)에서는 쌍형어에 속하는 ‘어휘항목’의 수효는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휘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쌍형어에 속하는 단어들 한 개의 어휘소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5) 이는 단어뿐 아니라 접미사 사이에도 쌍형어 관계가 성립한다고 기술하는 것이다.

쌍형어의 조건

기본 전제: 쌍형어는 동일한 기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 가. 동일한 기원에서 출발한 것은 의미가 동일하지 않거나 어형상 유사성이 없더라도 쌍형어로 보아야 한다.
- 나. 반대로 동일한 기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공존형은 의미가 동일하고 어형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쌍형어가 아니다.

1. 음운론적 조건:

- 가. 음성적으로 서로 유사해야 한다.
- 나. 통시적인 음운현상에 의한 교체형은 쌍형어로 볼 수 없다.

2. 형태론적 동일성: 그 내적 구성이 동일해야 한다.

3. 통사론적 조건:

- 가. 공존형이 통사론적으로 완전한 패러다임을 이루어야 한다.
- 나. 공존형 중 하나가 완전한 패러다임을 이루고 다른 하나가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이룰 때는 쌍형어로 처리한다.

4. 의미론적 동일성: 의미상으로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

배영환(2002)에서는 어원의 동일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원 연구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의 동일성과 형식의 유사성이라는 기존의 조건을 쌍형어 판단에 적용하고 있다. 배영환(2005:51)에서는 쌍형어인 ‘니를-’과 ‘니르-’는 이형태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활용 패러다임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이들은 각각이 개별 어휘 항목으로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양진·정연주(2008)에서는 ‘반드시’와 ‘반드기’라는 두 형태가 중세국어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둘은 쌍형어 관계에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이들의 어원 정보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쌍형어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하나의 어휘소에 속한다고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소영(2017)은 기존의 쌍형어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소영(2017)은 쌍형어를 어원론적 쌍형어와 어휘부 쌍형어로 구분한다.⁶⁾ 두 가지의 쌍형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원론

6) 김소영(2017)에서는 공시태에 대한 통시론적 해석을 위해서는 어원론적 쌍형어라는 개념이 필요하며 공시태에 대한 공시론적 기술의 차원에서는 어휘부 쌍형어

적 쌍형어는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형태가 공존하는 둘 이상의 어휘 쌍인데 의미가 같으면 동의 쌍형어가 되고 의미가 다르면 이의 쌍형어가 된다. 어휘부 쌍형어는 어휘 층위 쌍형어와 기저형 층위 쌍형어로 나뉜다. 어휘 층위 쌍형어는 동일한 의미 정보를 가지며 형태 구조가 유사한 어휘가 동일한 환경에서 복수로 존재하는 쌍이고 기저형 층위 쌍형어는 동일한 환경의 이형태가 쌍형어로 존재하여 한 어휘 항목 내의 기저형의 정보(결합 환경, 기저형의 개수 등)가 복수로 존재하는 쌍이다. 어휘 층위 쌍형어의 예로는 ‘의자/오자’, ‘놀이/노루’, ‘아비/애비’, ‘무엇/무어’ 등이 있고 기저형 층위 쌍형어는 15세기의 ‘니를-/니르-’가 해당된다.⁷⁾

기존의 한국어학에서 ‘쌍형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했는지 살펴해보았다. 암묵적으로는 공통된 어원을 가지는 단어들에 대해 쌍형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안병희(1957), 배영환(2002), 김소영(2017)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영환(2002), 김소영(2017)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한국어의 어원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공통된 어원이라는 기준 외에 어형의 유사성과 의미의 동일성을 쌍형어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김소영(2017)의 경우에는 쌍형어를 두 층위로 나누어 어원이 관련된 층위와 그렇지 않은 층위로 구별했다. 이는 배영환(2002)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쌍형어를 한 시기의 언어에 나타나는 단어들 가운데 의미가 동일하면서 음상이 유사한 단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면 쌍형어는 동의어의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같은 단어들인 동의어는 음성형식이 유사한 쌍형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

라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7) 현대국어의 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현대국어에는 기저형 층위 쌍형어가 없다는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8) 둘의 차이는 하나의 어휘소에 속하는 유형을 김소영(2017)에서는 인정했으나 배영환(2002, 2005)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니를-’과 ‘니르-’는 김소영(2017)에서는 하나의 어휘소에 속하지만 배영환(2005:51)에 따르면 별개의 어휘소에 속한다. 본고의 입장에서는 쌍형어가 되려면 별개의 어휘소여야 하므로 만일 ‘니를-’과 ‘니르-’가 별개의 어휘소라면 어간 쌍형어가 될 수 있다.

쌍형어가 동의어 내에서 구별되어 논의되는 것은 아마도 이들의 관계가 음운론적인 기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음운론적인 기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들이 공통된 어원에서 상이한 음운변화의 결과로 음상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공통된 어원에 대한 기준이 빠진 것처럼 보이거나 쌍형어를 동의어와 구별하여 따로 논의하는 것은 이들이 결국 공통된 어원을 가졌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쌍형어를 논의할 때 늘 등장하는 표현이 공존형이다. 또는 공존한다는 표현이다. 배영환(2002)과 김소영(2017)에서도 ‘공존형’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배영환(2002:56 주1)에서는 “‘공존’은 ‘특정한 시기에 동일한 의미와 비슷한 음상을 가진 어형이 둘, 또는 그 이상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이들 공존하는 어형들을 ‘공존형’이라 부르기로 한다.”라고 하였다. 어떤 시기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단위는 공존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학에서 ‘공존’한다는 표현은 조금 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배영환(2002)에서처럼 대개 의미가 동일한데 음상이 다른 문법단위들이 문헌에서나 자료에서 발견되면 이들을 동일한 시기와 동일한 지역에서 공존하는 공존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쌍형어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공존형이라는 표현은 언어학의 용어로 번역하기는 어려운 한국어학의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공존형 대신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쌍형어를 대신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두 용어는 의미나 용법이 유사하다.

쌍형어는 대개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어미나 접사의 경우에도 쌍형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어미의 경우에는 용언의 일부이므로 해당 용언 전체를 쌍형어로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미의 쌍형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서구 언어학에서 어떤 명사의 복수형이 둘일 때 이들은 쌍형어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라면 한국어의 쌍형어간 역시 굴절형의 쌍형어가 될 수도 있으며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형식이 상이한 두 어미는 어미와 어간의 결합형 전체인 굴절형이 쌍형어가 될 수 있다. 즉 어간이 쌍형이거나 어미가 쌍형이거나 둘 다 굴절형의 차원에서 동일하게 쌍형어로 처리된다. 그러나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문법을 기술하게 된다면 쌍형 어간이나 쌍형 어미의 설정이 가

능하게 된다. 정인호(2011)에서 언급한 ‘-습니까’의 선대형이 두 가지 음상으로 나타날 때 이는 쌍형 어미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석주연(2015)에서 제시한 형용사 파생 접미사의 경우에도 쌍형 접미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라면 김영일(2001)에서 접미사의 차이에 의한 쌍형어도 파생어들이 쌍형어인 것이 아니라 각 파생어의 접미사 둘이 쌍형어 관계를 이루게 된다. 공통의 어원이라는 점이 기준이 아니라면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음상이 다른 두 접미사는 쌍형 접미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접미사는 동일한 어근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쌍형어일 경우에 이들이 별개의 어휘소나 문법소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안병희(1959/1978)의 경우에는 이들이 별개의 어휘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기술이 나온다. 의미의 동일성은 결코 이들을 별개의 형태소로 다룰 수 없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바꾸어 표현하면 이들을 하나의 형태소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이들의 분포를 기존의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형태 관계라면 분포를 기술해 주어야 하는데 이들의 분포가 겹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별개의 형태소로 간주할 수 없어서 ‘쌍생 어간’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결국 ‘쌍생 어간’라는 용어의 용법은 마치 쌍두사처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뱀을 연상시킨다. 형태소의 차원에서서는 하나이지만 이형태의 차원에서 기술할 수는 없으므로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두 개의 머리처럼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김소영(2017)에서도 드러난다. 전형적인 복수 기저형은 아니지만 하나의 어휘소에 속하는 쌍형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저형이 둘 이상이 상정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쌍형어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어휘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분포의 배타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기저형으로 기술하든 표면형의 차이로 기술하든 분포의 배타성은 어휘소나 문법소를 개별 항목으로 분할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분포가 겹치게 되면 이는 별개의 어휘 항목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음성적 유사성이 큰 경우에 이를 하나의 어휘 항목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디디-’와 ‘딤-’이 하나의 어휘소

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약정의 층위라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디디-’와 ‘딤-’이 쌍형어이므로 하나의 어휘소에 속한다고 하려면 쌍형어의 어떤 속성이 그렇게 만드는지 논의해야 하고 거꾸로 하나의 어휘소에 속하므로 쌍형어라고 하려고 해도 역시 이들이 어떤 근거에서 하나의 어휘소에 속하는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양정호(2004)의 상보적 분포와 배타적 분포의 구별을 여기에 사용할 수는 있다. ‘무엇’과 ‘무어’는 분포가 겹치므로 다른 어휘소에 속한다. 즉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도 못하고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도 못하므로 다른 어휘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디-’와 ‘딤-’은 분포가 일부에서 겹치지만 배타적 분포도 보이므로 이 둘의 분포를 합치면 하나의 어휘소의 분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무엇’과 ‘무어’는 별개의 어휘소에 넣고 ‘디디-’와 ‘딤-’은 하나의 어휘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면 모든 쌍형어가 하나의 어휘소나 문법소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쌍형어는 별개의 어휘 항목으로 어휘부에 등재되지만 어떤 쌍형어는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어휘부에 등재된다는 것이다.

서구 언어학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쌍형어는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들의 쌍을 가리킨다. Skeat(1901:648)에서 쌍생어를 ‘형식에서는 분명히 다르지만 어원론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이고 동일하거나 사소한 접미사 결합에서만 차이가 나는 단어들이다.’라고 정의하고 Palmatier(1972)에서는 ‘동일한 기원에서 출발하였지만 상이한 파생적 역사를 가지는 한 언어의 단어들 쌍’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동섭(1994:89)에서는 ‘이중어’를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되었으나 그 형태와 의미가 다른 단어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성식 편(1990:366)에서는 동일어에서 나와 두 개의 다른 형태의 어가 되는 경우, 또는 동일어가 다른 시기에 2회에 걸쳐 다른 형태 또는 의미로 차용되는 경우 이들 단어를 서로 이중어라고 부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Bloomer(1998)는 기존의 쌍형어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쌍형어의 유형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Bloomer(1998)에서 살펴본 논의는 Skeat(1882: 772-4), Allen(1908:184-6), Hockett(1958:358-9, 410), Lehmann(1958:227), Wang(1969:15-6), Anttila(1977:79), Hoenigswald(1983:167-87), Hock(1986:168-9, 385, 415-6), Behaghel 1878:257-88), Andresen(1891:265-85),

Paul(1920:254-60), Menut(1922:13-27) 등이었다. 이들 논저 모두에서 동의 한 내용은 쌍형어들이 주어진 한 언어에 나타나야 하고 둘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며 다양한 품사에서 기원할 수 있으며 어기이거나 굴절형이거나 파생어나 복합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dresen(1891)을 제외하고 모든 논의에서 쌍형어는 음운론적으로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⁹⁾

Bloomer(1998)에서는 어원적 쌍형어와 형태론적 쌍형어, 어휘론적 쌍형어로 쌍형어를 나누었다. 어원적 쌍형어가 전형적인 쌍형어에 해당한다. 어원적인 쌍형어도 순수한 유형과 복합적인 유형으로 나뉜다. 순수한 유형은 동일한 어원에서 갈려나온 단어들이다. 의미가 같을 수도 있고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 복합적인 유형은 동일한 단어의 서로 다른 굴절형에서 발달해 온 쌍형어이다. 의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형태론적 쌍형어는 공통된 어간에 상이한 굴절머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유형, 동일한 어원에서 발달해서 상이한 굴절형으로 발달한 유형, 공통된 어근에 상이한 접미사 결합한 유형으로 나뉜다. 어휘론적인 쌍형어는 기존에 있는 단어와 의미가 같은 단어가 다른 언어에서 차용되어 형성된 유형이다. 어원적인 관련이 전혀 없지만 쌍형어에 포함시켰다.

순수한 유형의 쌍형어는 한국어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제시된 쌍형어들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형태론적 쌍형어의 경우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동일한 의미의 서로 다른 파생어가 만들어진 경우인데 구분관(1998:317)에서도 15세기 부사파생접미사 ‘-히’의 경우에 ‘-히’가 결합하는 어기가 ‘-이’와도 결합하므로 ‘-히’와 ‘-이’의 관계를 형태론적인 이형태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일종의 쌍형어 관계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접미사에 대해 쌍형어 여부를 논의한 것이다. 파생어 자체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파생 접미사로 파생되었지만 의미가 같으므로 이는 파생적인 쌍형어어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굴절형의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한국어에서는 전통적으로 굴절을

9) Andresen(1891)은 Man과 Mann을 쌍형어라고 했으나 이들은 표기에서만 다를 뿐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Bloomer(1998)은 쌍형어로 보지 않지만 Wang(1969)에서 제시한 [ru:f]와 [rʊf]와 Hocket(1958)에서 제시한 [mæri]와 [meri:]는 정서법적으로나 음소적으로는 동일함에도 음성적으로는 달라서 쌍형어로 간주한다.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른바 한국어의 굴절어미가 전형적인 굴절어미와는 다른 면이 많아서 최근에는 이를 단어에 준하는 문법단위로 기술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굴절형의 쌍형어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굴절형이 없기 때문이다. 용언 어간과 어미를 완전히 분리하여 문법단위로 기술하게 되면 굴절형의 쌍형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진다. 만약 한국어에 굴절을 인정하게 된다면 ‘딛고’와 ‘디디고’는 굴절형의 쌍형어가 되는 것이다.

Sesarsdottir(2015)에서는 쌍형어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눈다. 형태론적 쌍형어(morphological doublet)는 공통된 어근에 상이한 파생접사가 결합한 동어의 파생어의 쌍을 가리킨다. ‘rear’와 ‘raise’의 쌍이 여기에 속한다. 어휘론적 쌍형어는 의미가 같은 단어의 쌍을 가리킨다. ‘brotherhood’와 ‘fraternity’의 쌍이 여기에 속한다. 어휘론적 쌍형어는 동의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Sesarsdottir(2015)에서는 어원론적인 동족어를 설정하고 이를 어원론적 쌍형어와 동족 쌍형어로 다시 나눈다. 어원론적 쌍형어는 계통적으로 관련된 언어에서 동족어를 차용하여 두 단어가 의미는 다르지만 공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동족 쌍형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경우에 발생한다. 의미론적 쌍형어는 기존의 단어와 의미가 같은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 차용할 경우에 발생한다. 마지막 유형은 어원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차용어를 쌍형어와 관련시킨 논의도 있다. 김희정(2001)에서는 수용 경로에 따라 의미 분화가 생긴 영어 차용어를 쌍형어(doublet)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오라이’와 ‘올라인’, ‘뺨’과 ‘빠꾸’와 같은 단어들을 쌍형어라고 부르고 있다. 쌍형어를 구별할 때 동일한 어원이라는 기준과 의미의 차이라는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미현(2017)에서는 ‘doublet’을 이중어로 번역하는데 한 언어에 본래 어원이 같은 동족어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된 결과, 후에 어형이나 뜻에 차이가 생긴 두 개의 낱말을 이중어(doublets)라 한다. ‘skirt’와 ‘shirt’가 이중어에 해당한다.

III. 쌍형어의 정의와 유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쌍형어’ 또는 ‘doublet’이라는 용어는 많은 경우에는 공통의 어원을 갖는 단어들의 쌍을 가리키지만 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어학에서는 음성 형식이 유사한 동의어를 가리키기도 하고 서구 언어학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 고유어와 차용어의 쌍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가운데 어떤 용법이 옳거나 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단어들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하여 묶어서 그들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적합하다면 다양한 용법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공통의 어원과 형식의 유사성이라는 상이한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쌍형어 논의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공통의 어원과 관련이 되는 용어는 ‘동족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의 동일성은 동의어라는 용어와 관련되지만 실제로 쌍형어 논의의 대상이 되는 언어 표현에 대해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는 공존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백미현(2017:142-3)에 따르면 동족어(cognate)란 말 그대로 같은 언어에서 유래된 어휘들을 일컫는다. 영어 house와 네덜란드어 huis, 그리고 독일어 Haus가 모두 원시 게르만어인 *husan에서 유래된 것처럼, 같은 언어에서 유래된 어휘들을 일컫는다. 인구어에서 유래된 여러 언어 사이에서 동족어가 발견된다. 또한 한 언어에 본래 어원이 같은 동족어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된 결과 후에 어형이나 뜻에 차이가 생긴 두 개의 낱말을 이중어(doublets)라고 한다.¹⁰⁾

쌍형어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원이 같은 단어들의 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족어와 겹친다. 둘의 차이는 동족어는 여러 언어에 걸쳐 존재할 수 있으나 쌍형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언어 내에 공존하는 단어들이 공통된 어원을 가질 때 그 단어들을 가리킨다. 동족어를 좀 더 세분해서 언어 간에 존재하는 동족어와 언어 내에 존재하는 동족어로 구분한다면 쌍형어는 공존하는 동의어들 가운데 형식이 유사한 동의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10) 쌍형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가장 협소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쌍형어의 정의와 유형을 다루고 있으므로 동족어와 쌍형어는 일단 언어 간과 언어 내라는 기준으로 구별해 둔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어학에서 ‘공존’한다는 표현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대개 의미가 동일한데 음상이 다른 문법단위들이 문헌에서나 자료에서 발견되면 이들이 동일한 시기와 동일한 지역에서 공존하는 공존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쌍형어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쌍형어 대신에 공존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족어나 공존형과는 다른 용어로서의 쌍형어의 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김소영(2017)에 따르면 쌍형어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하나는 공통된 어원이고 또 하나는 의미와 형식의 유사성이다. 그런데 쌍형어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고 둘 중의 하나만 가지면 된다.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지만 모두 쌍형어에 속하게 된다. 구체적인 언어 현상을 다루게 되면 개념의 외연을 넓힐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속성을 이접적으로 사용하여 쌍형어를 정의하거나 쌍형어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두 가지 속성은 논리적으로는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이 두 가지 속성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공통된 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와 형식의 유사성은 고려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공통된 어원을 가지고 의미와 형식이 유사한 단어들의 쌍을 쌍형어라고 하면 이접적인 조건의 설정을 통한 정의를 피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되면 어원이 같지 않지만 형식이 유사하고 의미가 같은 단어들이나 어원은 같지만 형식이 다르거나 의미가 다른 단어들은 배제된다.

쌍형어를 정도의 개념으로 본다면 전형적인 쌍형어는 어원이 같고 의미와 형식이 유사한 단어들의 쌍이 된다. 이러한 전형성에서 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유형을 나눌 수는 있다. 어원이 같지만 형식의 유사성이 전혀 없이 의미만 같은 유형, 어원이 같지만 형식의 유사성은 있고 의미는 다른 유형, 어원이 같지만 형식의 유사성도 없고 의미는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어원은 다른데 형식이 유사하고 의미는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쌍형어에서 가장 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쌍형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원의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원의 공통성에 따라서도 유형화가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단어들의 일부의 어원이 같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전형적인 쌍형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부의 어원이 같은 경우는 공통된 어원에 접사가 붙은 경우일 것이다. 내적인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어원이 같고 나머지는 다르게 되는 것이다.

어원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의어나 유의어에 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어학 논의에서 의미가 같고 형식이 유사한데 굳이 이들을 쌍형어나 쌍형어간이라고 부른 것은 이들의 어원이 공통적일 것이라는 가정이나 전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어 연구에서 늘 문제로 제기되는 문헌의 결핍과 관련된다.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자료가 많지 않아서 중세국어 시기에 의미가 같고 형식이 유사한 단어들을 그냥 동의어나 유의어로 부르기에 이들의 어원이 공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배영환(2002)이나 김소영(2017)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김소영(2017)에서는 쌍형어를 두 층위로 나누어 분류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원의 확인이 어려운 점을 꼽고 있다.

문헌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쌍형어로 제시된 단어들이 공통된 어원을 가진다고 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대국어의 쌍형어들도 어원이 분명하게 중세국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원 연구가 추측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시기의 단어의 어원으로 추정되는 어형이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우연히 다른 어형이 문헌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전 시기의 특정한 하나의 어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둘 이상의 상이한 어형으로 변화했다고 간주하고 그 어형들의 공통된 어원으로 이전 시기의 유일하게 기록된 어형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의미가 같고 음상이 유사한 단어들을 공통된 어원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쌍형어라고 부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추정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면 쌍형어는 동의어 가운데 어원이 같을 가능성이 매우 큰 단어 쌍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문제 제기를 고려해서 김소영(2017)에서는 쌍형어를 두 종류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원론적 쌍형어에서 어원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층위를 달리한 것을 제외한다면 어원 문제를 해결한 분류라고 할 수는

없다.

김소영(2017)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두 종류의 쌍형어를 아우르는 기준이나 속성을 찾기는 어렵다. 둘 사이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소영(2017)의 처리를 더 발전시킨다면 쌍생어와 쌍형어를 구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어원론적 쌍형어는 쌍생어라고 부르고 형식상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어휘부 쌍형어는 쌍형어라고 부르는 것이다. 둘은 속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어원과 형식이라는 별개의 기준으로 나누어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준에 쌍형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의미가 같고 형식상의 유사성을 보이는 단어들의 쌍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공존형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므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¹¹⁾

본고에서는 어원이라는 기준이 쌍형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아 어원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쌍형어를 분류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원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면 쌍형어보다는 쌍생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음상이 유사한 단어 쌍을 따로 쌍형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기준에 많이 사용된 것을 고려하여 일단은 쌍형어라고 부르기로 한다.

어원의 공통성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기준은 아니다. 어원의 공통성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조어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어려운 단어들 많아서 일단 기존의 논의에서 언급된 단어 쌍을 기준으로 본다면 두 단어가 하나의 어원을 공유하면 일단 쌍형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싱’에서 기원한 ‘중생’과 ‘짐승’이나 재구형 ‘*뜰글’에서 유래한 중세국어의 ‘뜰글’과 ‘드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¹²⁾ 공통된 어원을 갖지만 다른 언어에서 차용된 경우도 쌍형어에 포함된다. 외래어 또는 차용어라고 하는 단어들은 ‘텔레비전/텔레비/테레비’와 같이 어형이 다양한데 이들도 쌍형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의 어

11) 이들이 결국 동의어 쌍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형 동의어나 쌍형 동의어와 같은 용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 김성규(1996)에서는 중세국어의 ‘뜰글/드틀’이 재구형 ‘*뜰글’에서 음운 변화의 결과로 서로 다르게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에서 하나만 변화를 겪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겪지 않은 경우에도 쌍형어에 포함시킨다. ‘의자/오자, 아비/애비’와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공통된 어근에 의미가 같지만 형식이 다른 접사가 결합한 경우는 파생어 쌍형어에 해당한다.¹³⁾ 파생어 쌍형어는 의미가 같아야 한다. 중세국어의 ‘식이’와 ‘식히’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¹⁴⁾ 어근에 의미가 다른 접사가 붙은 경우는 쌍형어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⁵⁾ 공통된 어원을 가진 단일어 쌍형어는 의미가 동일한 경우와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중생’과 ‘짐승’은 의미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굴절형의 쌍형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굴절형의 쌍형어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간 쌍형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디디고’와 ‘딘고’는 굴절형 쌍형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굴절형에서만 쌍형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어미와의 결합형 모두에서 쌍형어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어간 쌍형어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두-’와 ‘건-’은 활용의 패러다임이 동일하므로 어간의 쌍형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디디고’와 ‘딘고’는 ‘디디-’의 모든 활용형에서 ‘딘-’과 공존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는 활용형의 쌍형어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간 쌍형어나 어미 쌍형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다르게 활용형의 쌍형어를 따로 인정할 수도 있다. 즉 ‘거두-’와 ‘건-’은 모

13) 김영일(2001:97-100)에서는 동일한 어근에 형식은 상이하지만 의미는 같은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쌍형어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꺾고-/꺾기-, 혈우-/혈이-, 느추-/느치-, 비르서/비르소/비르수, 모다/모도, 주머귀/주머, 터럭/터리, 거플/겹질/거피’ 등이다. 이 밖에도 ‘어즈러이-/어즈라-’와 같은 예가 더 제시되어 있으나 ‘어즈러이-’는 ‘어즐+업+이’에서 유래하고 ‘어즈라-’는 ‘어즐+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석한다. 전자는 두 개의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고 후자는 하나의 접미사가 결합한 예라는 점에서 특이한 예이다. 또한 하나는 파생어이고 하나는 단일어인 경우도 있다. ‘긴’과 ‘기둥’은 쌍형어 가운데 하나는 단일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단일어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파생어이다.

14) 물론 접미사 단위의 ‘쌍형어’를 인정하게 되면 쌍형 접미사에 의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파생어를 쌍형어에 넣기는 어려울 것이다.

15) 석주연(2015:84)에서는 접미사 ‘듬’과 ‘답’을 쌍형어 관계로 보고 있다. 이는 이 두 접미사의 어원이 같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들이 결합한 파생어는 쌍형어가 아니더라도 이들 접사는 쌍형 접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든 활용의 패러다임을 가지므로 어간 차원의 쌍형어로 인정할 수 있지만 ‘디디-’와 ‘딤-’은 일부 활용에서만 공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간의 공존형이 아니라 활용형의 공존형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다.¹⁶⁾

어간 쌍형어와 어미 쌍형어는 어미를 굴절로 간주할 경우에 굴절형 쌍형어로 포함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굴절형을 쌍형어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통사단위라는 주장이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어간과 어미를 하나의 통사단위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어미를 분리하여 따로 기술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학교문법의 관례에 따르기는 하지만 한국어의 어간과 어미 결합형을 굴절형으로 분류하여 부르는 것은 일부에 국한한다. 관형사형, 명사형, 부사형,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정도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러한 활용형들은 어말어미에 국한된 것이다. 선어말어미까지 포함한 굴절형의 명칭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먹었다’를 과거평서형, ‘먹었니’를 과거의문형이라고 부르는 일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가시었다’는 주체존대과거평서형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찾기 어렵다. ‘가신’을 주체존대관형사형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다. 이는 어미가 독자적인 문법단위로서 어간과 분리되어 기술되는 한국어 문법 기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미를 굴절이라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를 서구언어학의 굴절형으로 기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활용형의 쌍형어는 어간 쌍형어와 어미 쌍형어로 분리하여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¹⁷⁾

16) 즉 이들은 부분 쌍형어라고 해야 한다. 쌍형어라면 모든 환경에서 공존해야 하지만 이들은 부분적으로 쌍형어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하나의 어휘소에 속하는지 별개의 어휘소에 속하는지 하는 문제이다. 안병희(1959/1978), 김소영(2017) 등은 이들이 하나의 어휘소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쌍형어의 조건에서 공통된 어원을 가지고 의미가 같고 형식이 유사한 단어 쌍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이들은 별개의 어휘소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별개의 단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분류를 위한 작업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단어에 속하는 활용형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작업이다. 애초에 동의가 아니었다면 하나의 단어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형어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유사한 형식의 단어들이라고 할 때는 이미 별개의 단어라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쌍형어’라는 용어가 단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

어미 쌍형어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미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진호(1994)에서처럼 어미를 통사원자로 간주하는 논의를 반영한다면 어미도 통사원자이므로 어미 쌍형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미 쌍형어의 예는 정인호(2011:88-89)에서 볼 수 있다.

-습늑니잇가>-습늑닛가>-습늑닛가/-습늑잇가>-습닛가>-습니까

정인호(2011)에서는 위 어미연결의 변화 과정에서 형태소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니’의 수의적 실현에 따른 쌍형어인 ‘-습늑닛가’와 ‘-습늑잇가’가 공존하다가 ‘-습닛가’로 변화했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어미 쌍형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를 어미 쌍형어로 보려면 ‘-습늑닛가’와 ‘-습늑잇가’가 단일한 어미여야 한다.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연결이 아닌 단일한 어말어미이며 종결어미로 분석되어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종결어미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어미 쌍형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이들을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결합형이라고 한다면 기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미 쌍형어의 다른 예로는 ‘-소’와 ‘-으오’가 있다. 이 둘의 어원은 후기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습-’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종결어미로 변화하였지만 그 기능에서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어원의 공통성만으로도 기능이 다른 것과 관계없이 쌍형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간 쌍형어와 어미 쌍형어는 모두 하나의 어휘소와 문법소에 속한다. 결국 이형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교체 관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하나의 어휘소와 문법소의 어휘 내향 정보의 일부이다. 이 문제는 배타적 분포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디디-’와 ‘딤-’이 별개의 어휘소가 아니라고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최근 매우 민감한 논의 주제가 되었다.¹⁹⁾ 비음운론

간 쌍형어와 어미 쌍형어는 각각 ‘쌍형 어간’과 ‘쌍형 어미’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들을 모두 모아서 부르는 명칭인 ‘쌍형어’와 조금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일단 어간 쌍형어와 어미 쌍형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8) 이들을 별개의 어미가 아니라 수의적인 변이형으로 간주하게 되면 이들을 쌍형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독립된 어휘부의 어휘 항목(어휘소 또는 문법소) 사이의 관계를 쌍형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들이 수의적인 변이형으로 하나의 어미의 서로 다른 실현형이라면 쌍형어라 부를 수 없다.

적 조건에 의한 교체에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 문체적 교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논의와 이들을 모두 유의 관계에 놓인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²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간 쌍형어와 어미 쌍형어를 분류해 두고자 한다. 하나의 어휘소나 문법소에 속한다면 그러한 특징을 반영해야 하며 유의 관계에 놓인다고 할 경우에도 어간 쌍형어는 다른 하나의 결합 관계에 포함되는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다른 쌍형어와는 구별될 수 있다. 어미 쌍형어는 다른 유형이 없으므로 교체로 보든 유의 관계로 보든 독자적인 하나의 유형이 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별개의 문법소에 속하는 어미의 쌍으로 보고자 한다. 하나의 형태소 또는 어휘 항목에 속하는 기저형이나 표면형은 이 형태 관계나 자유변이 관계에서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된 어원을 가진다 하더라도 범주가 달라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하나의 어원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범주가 된 경우는 쌍형어에 포함하기 어렵다. ‘-습-’에 기원을 두지만 현대국어의 ‘하오니’에서 ‘오’는 위의 종결어미 ‘-오오’나 ‘-소’와 쌍형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의미가 같아야 쌍형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주가 다른 것은 전형적인 쌍형 관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미들을 쌍형어로 묶을 때는 분석의 문제가 늘 개입한다. 현대국어에서 공존하는 ‘-느냐’, ‘-으냐’와 ‘-냐’는 공통된 어원을 갖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느냐’는 ‘-느-’와 ‘-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느냐’와 ‘-냐’는 쌍형 어미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미 굳어져서 하나의 어미가 된 ‘-느냐’에서 음성 형식인 ‘느’가 탈락하여 ‘-냐’가 형성된 것이라면 이때는 쌍형 어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로 형용사 어간에 결합하던 ‘-냐’의 분포가 확대되어 동사

19) 송홍규(2011)은 ‘-던-’의 활용의 패러다임이 ‘-디디-’에 비해 부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어간의 쌍형어가 아니라 활용형의 쌍형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표면형의 차이로 기술되어야 하고 결국 별개의 어휘소에 속하지 않게 된다. 동일한 태도는 아니지만 김소영(2017)에서도 쌍형어 중에 기저형 층위의 쌍형어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 민현식(1996), 배주채(2009, 2017), 김진희(2014), 양정호(2016), 김유범(2017) 등은 이형태 교체의 조건을 다양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박재연(2010)은 비음운론적인 조건을 확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이은경(2017), 이흥식·이은경(2017)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어간에도 ‘-냐’가 결합하게 된 것인지 ‘-느냐’에서 ‘느’가 탈락해서 동사 어간에도 ‘-냐’가 결합하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문제는 ‘-으냐’와도 관련이 된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의 경우에는 ‘-냐’가 결합한 형식이 실현되는데 이러한 형식이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동사 어간과 형용사 어간 모두 음운론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냐’가 결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느냐’와 ‘-으냐’에 대해 ‘-냐’가 쌍형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문제는 ‘-느냐’와 ‘-으냐’가 하나의 문법소에 속해야 하고 ‘-느냐’와 ‘-으냐’에서 ‘-냐’가 유래한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 점이다. 그럴 경우에 이들은 어미 쌍형어에 속하게 될 것이다.

조사 쌍형어는 ‘로’와 ‘루’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하고’ ‘하구’도 있다. ‘를’과 ‘르’은 공통된 어원인가 하는 점을 의심할 수 있다. ‘를’이 김완진(1975)에서 말한 형태소 증가형이라면 동일한 형태소가 증가된 형태와 하나인 형태는 공통된 어원을 가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둘이 하나의 형태소의 이형태인가 아닌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완진(1975)나 한재영(1997:779)에서는 이 둘이 이형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본고의 입장에서 이들은 쌍형어가 될 수 없다. 본고에서는 독립된 어휘 항목(문법소나 어휘소)들이 쌍형어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둘이 별개의 어휘 항목에 속한다면 이들은 공통된 어원을 가지므로 조사 쌍형어가 될 수 있다.

쌍형어는 동의 쌍형어와 이의 쌍형어로 나눌 수 있다. 다만 파생어 쌍형어는 동의 쌍형어만 있다. 어간 쌍형어, 어미 쌍형어, 조사 쌍형어는 동의와 이의가 다 가능하다. 둘 이상의 단어 등이 줄어들어 준말이 된 경우에 이들은 쌍형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어 있-’과 ‘-있-’이 쌍형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기 쌍형어는 특정한 공통된 표기에서 발음은 같은 이표기가 나타난 것이다. 김영일(2001:138)에서는 ‘근ㅎ-’와 ‘ㄱ트-’, ‘딕화-’와 ‘딕화-’, ‘구뜰-’, ‘굽슬-’, ‘긱블-’을 표기의 차이에 의한 쌍형어라고 분류하였다.²¹⁾ 문자론을

21) 위 예에서 ‘긱블-’은 표기의 차이에 의한 쌍형어라고 하는 어렵다. 발음이 동일하다고 하기 어려운 예이다.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아직 음운론만큼 대등하게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는 듯하다. 문어와 구어의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기 전에는 일단 표기의 문제는 배제하기로 한다.

이 밖에도 줄어든 형식의 경우에도 쌍형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다고 하는’이 ‘-다는’이 된 것이 그런 경우일 것이다. 일단 비교의 대상이 동일한 문법적 속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쌍형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라고 하는 점을 받아들여서 이들은 쌍형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기존의 쌍형어 논의들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쌍형어는 공통의 어원에 갈라져 나온 단어들의 쌍을 가리키지만 공식적으로 의미가 같고 형식의 유사성을 보이는 단어 쌍들이나 문법 형태소들의 쌍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고는 전형적인 쌍형어는 공통의 어원을 가지는 단어들의 쌍이라고 보았다. 쌍형어는 의미나 형식의 유사성이나 차이에 따라 하위 유형화가 가능하다. 전형적인 쌍형어에서 가장 떨어진 것은 공통의 어원을 가지지는 않지만 의미가 같고 형식이 유사한 단어들의 쌍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쌍형어가 단어들의 쌍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공통의 어원을 가지는 단어들의 쌍이 전형적인 쌍형어나 조사나 어미의 경우에도 쌍형어를 인정한다면 조사 쌍형어나 어미 쌍형어의 존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 좀 더 정확하게 부르려면 쌍형 조사나 쌍형 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접미사의 경우에는 접미사 쌍형어의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쌍형어를 형성하므로 굳이 접미사 쌍형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어미의 경우도 해당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의 쌍형어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한국어의 어미가 통사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많은 활용형의 쌍형어를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어미가 쌍형어라고 하는 쪽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간 쌍형어나 어미 쌍형어 일부가 기저형 층위에서 일종의 이형태 관계를 이

루는지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하나의 어휘 항목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쌍형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일종의 복수 기저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충구, 「십팔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1998.
- 김건희, 「이형태 설정의 문제」, 『어문학』 123, 2014.
- 김관식, 「불어의 음운변화에 비추어 본 어원적 쌍립어의 형성에 관한 소고」,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19, 1987.
- 김동섭, 「불어의 이중어 연구」, 『수원대학교논문집』12, 1994.
- 김무림, 「중세국어 쌍형 어간의 음운사적 고찰」, 『어문논집』 34, 1995.
- 김성규, 「‘드틀’과 ‘든글’이 공존」,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96.
- _____, 「중세국어의 쌍형어에 대한 연구」, 『전통어문연구』(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10, 1998.
- 김소영, 「쌍형어의 개념과 분류」, 『어문연구』 45-1, 2017.
- 김양진, 「한국어의 형태와 형태소」, 『국어학』 81, 2017.
- 김영일, 「15세기 국어 쌍형어 고찰」, 『한글』 251, 2001.
- 김완진,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형에 대하여」, 『국어학』 3, 1975.
- 김유범, 「이형태의 성격과 이형태교체의 유형」, 『국어학』 81, 2017.
- 김희정, 「영어 차용어의 한국어 수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도원영 · 김의수 · 김숙정, 「‘본말/준말’류에 대한 재고: 사전의 어휘 관계 기술을 위하여」, 『한국어학』 37, 2007.
- 민현식, 「중세국어의 교체 현상 기술에 대한 재검토」,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96.
- 박은용, 「이두표기 <一等>에 대하여: doublet에 의한 비교연구」, 『효대논문집』(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2, 1967.
- 박재연, 「이형태 교체와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58, 2010.
- 박진호,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서울대학교 국어연구

회) 123, 1994.

배영환, 「후기 중세국어 쌍형어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19, 2002.

배주채, 「‘달다, 다오’의 어휘론」, 『국어학』 56, 2009.

_____, 「교체의 개념과 조건」, 『국어학』 81, 2017.

백미현, 「영어 이중어」, 『인문학연구』 106, 2017.

석주연, 「중세 국어 형용사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21, 2015.

송철의, 「준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고찰」, 『동양학』(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23, 19939.

송홍규, 「준말에서의 어미 결합 제약에 대하여」, 『한어문교육』 24, 2011.

안병희,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1959/1978.

양정호, 「형태소 개념과 국어사 기술」, 『한국문화』(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34, 2004.

_____, 「‘않-’와 ‘말-’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78, 2016.

이승녕, 「語幹變形說의提起」, 『論文集』(서울대학교) 6, 1957.

이승재, 「재구와 방언분화: 어종의 ㅅ-기류 단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12, 19833.

이은섭, 「의존 명사 ‘것’으로부터 도출된 몇몇 형식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5.

이재현, 「현대 국어의 축소어형에 관한 연구: 축소어형과 준말의 정의, 축소어형의 조어법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7, 2005.

이지양, 「국어 준말의 성격」, 『성심어문논집』(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5, 2003.

이은경, 「교체와 유의관계」, 『한국어학』 77, 2017.

이흥식·이은경, 「교체의 분류에 대하여」, 『국어학』 82, 2017.

정인호, 「의문형 종결어미의 방언 분화」, 『방언학』 14, 20111.

조성식 편, 『영어학사전』, 신아사, 1990.

한재영, 「어간교체형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1997.

Allen, E. A., “English Doublets,”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3, 1908.

Andresen, K. G., “Wortspaltung auf dem Gebiete der neuhochdeutschen Schrift- und Verkehrssprache,” *Zeitschrift für deutsche Philologie* 23,

1891.

- Antilla, R., *Analogy*, The Hague: Mouton De Gruyter, 1977.
- Bloomer, Robert K. 1998. "Types of Linguistic Doubles," *Studia Neophilologica* 70, 1998.
- Hock, H.,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1986.
- Hockett, C. F.,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1958.
- Hoeningwald, H. M., "Doubtles," *Essays in Honor of Charles F. Hockett*, eds. by F.A. Agard et. al., Leiden E. J. Brill, 1983.
- Lehmann, W. P.,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e, 1962.
- Menut, A. D., *the Semantics of Doublets Studied in Old and Middle French*. New York: Carranza & Company, 1922.
- Palmatier. R. A. 1972. *A Glossary For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New York: Appleton-Centry-Crofts, 1972.
- Paul, H.,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5th. ed.), Halle a. S.: Max Niemeyer, 1920.
- Sesarsdottir, Arna Run, "Doublets : A Study of Old Norse Influence on English Vocabulary," B. A, Essay in University of Iceland, 2015.
- Skeat, W. W., *Concis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1882.
- Wang, W. S-Y.,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 1969.

❖ ABSTRACT

On Doublets

Yi, Eun-Gyeong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issues of the discussions on the subject of doublets. In general, as a definition, the use of doublets refer to a pair of words which have a common etymon, but also to a pair of words or grammatical morphemes that have the same meaning and similar forms of the word. In this paper, we have seen that a typical pairing word is a pair of words with a common etymology. Generally speaking, it is possible to divide doublets into subtypes depending on the identified similarities or differences in the meaning or form. The most distant type from the typical type of doublets is a pair of words that do not have a common etymon, but have the same meaning and are similar in form. The second issue about doublets is whether doublets include only words. For example, if some josas (postpositions or particles) have a common etymon, then it is noted that they can be accepted as a kind of doublets. In the case of suffixes, it may be possible to recognize the suffixes as doublets if they have a common etymon. In other words, it is not necessary to recognize the suffixes as doublets because the derivatives which are derived by the suffixes can be accepted as doublets. In the case of endings, it may be possible to recognize a pair of endings which have the same meaning and the common etymon as a doublet. Otherwise, the word forms to which the endings are combined can be accepted likewise as doublet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ndings typically in use in the Korean language may have syntactic properties, the endings should be considered as doublets rather than the words which have the endings. Finally, we conclude that there may be some debate as to whether stem doublets or ending doublets belong to a lexical

item in the lexicon.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plural underlying forms and may be deserving of further research.

Key Words : doublet, cognate, synonymy, underlying form, surface form, etymon

■ 논문접수일 : 2018. 02. 10

■ 심사완료일 : 2018. 02. 28

■ 게재확정일 : 2018. 03. 01

